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과 관련성 이론 연구

박 희 진
(부산대)

1. 서론

정보기술 산업의 혁명은 현대인에게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과 더불어 TV, 신문, 라디오 등의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화는 촉진되어가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겨났을 때부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맡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아 하나의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시스템의 하나로 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번역에 대한 저조한 인식들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 많은 일 중 한 가지는 미디어 번역¹⁾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미디어 번역 중 하나인 영상 번역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의 미디어 번역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을 소개하고 라디오 텍스트의 번역 방법과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의 인지론적 관련성과 관련성 이론을 번역에 접목한 구트(Gutt)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따라 영어 라디오에서 방송된 텍스트의 한영 번역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의 목적은 방송 미디어 번역 분야에서 관련성 이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번역 유형²⁾(text type)보다 어느 정도의 범위가 수용되는지를 비교해보고 미래의 라디오 텍스트를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게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른 번역 유형과 비교해 라디오의 두드러진 특성을 관련성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성 이론을 번역에 접목한 구트조차도 번역이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명시하는 데 그쳤고 라디오와 같은 특정 매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을 실제로 구분하고 분석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성 이론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추론할 수 있는 명제와 함축적 의미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학에서는 주로 영화나 만화와 같은 대화(dialogue) 텍스트 번역을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³⁾된다. 본 논문의 주안점은

- 1) 미디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상 번역을 기술 번역, 문학 번역 등과 함께 따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대중 매체 중 영상 매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번역의 하나로 본다. 물론 미디어/매체라는 것은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 매체의 일부분으로 문학과 같이 인쇄물을 미디어 매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의 범위를 대중 미디어, 그 중에서도 전파 매체인 TV, 라디오, 영화, 레코드 등으로 한정시키고 그 속의 미디어 번역을 논한다.
- 2)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유형은 구트(1998)가 언급한 텍스트 유형학(text typology)이 담고 있는 의미에 한정되며 소설이나 시 등, 텍스트의 장르뿐만 아니라 연설문, 비평, 기사, 만화, 해설, 교과서 등 글로 쓰이거나 발화되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를 구분 짓는 데 사용된다.
- 3) 이러한 논문들의 연구 사례로는 정인희의 박사 학위 논문인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한 영상번역 연구번역 현상」, 김정림의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일한 더빙번역에 나타난 번역자의 개입」, 김순영의 「은유표현의 풀어서 번역하기 방식이 SL과 TL의 맥락」, 박미정의 「한일시사만화번역의 시각이미지 은유와 번역제약 -시사만화

라디오 텍스트 번역의 사례를 통해 인쇄물과 같은 다른 텍스트 유형의 번역과 비교해 볼 때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만 나타나는 관련적 특징들을 구분하고 다양한 상황들 속 필요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설립된 영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텍스트를 번역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적 번역의 범주 아래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 관련성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 밝힌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라디오 번역 텍스트가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번역되었는지 분석하여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라디오 번역 텍스트가 가지는 관련성 특징을 정리하며 본 연구가 미래의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이다.

2. 라디오 방송 번역의 특성과 관련성 이론

2.1. 영어 라디오 방송국의 번역 시스템

영어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다른 일반 한국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음악, 뉴스, 시사, 오락 등을 다룬다. 방송위원회의 라디오 방송 발전연구위원회에서 분류한 프로그램 유형은 총 열 가지로 뉴스, 시사정보, 생활정보, 교양/교육, 순수음악, 쇼/토크, 퀴즈/게임, 스포츠, 드라마, 그리고 기타로 나뉜다(최현철 2004: 28). 영어 방송국들의 주중 방송 서비스 현황⁴⁾을 보면 주로 뉴스, 시사정보, 생활정보, 순수음악, 쇼/토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 입수⁵⁾의 한계 상 부산영어방송의 프로그램 중 번역으

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등이 있다.

4) <부록 1> 참고

5) 영어 방송국의 원고는 비공개이다. TBS 영어 방송국의 경우 www.tbsenglish.com에서 유료로 대본과 함께 다시 듣기가 가능하나 번역 과정의 텍스트는 공개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 텍스트를 구할 수 있는 부산영어방송 원고만으로 분석을 한다. 필자가 부산영어방송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번역한 텍스트와 다른 번역가를

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분석할 것이다. 한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그 특유의 성격에 의해 세분된 분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류를 선별해서 분석한다. 분석대상 프로그램들은 생활정보, 음악, 옴니버스 프로그램 등이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중 뉴스나 쇼/토크와 같은 프로그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뉴스는 신속한 원고 작성이 필요하고 전문 용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역할 경우 빠른 뉴스 보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프로듀서와 앵커가 직접 준비하며 쇼/토크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자 본인이 원고를 작성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영어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영어 진행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거나, 영어 작가가 처음부터 영어로 원고를 쓰고 진행자에 의해 수정되는 방법, 그리고 한글로 쓴 원고를 번역 작가가 번역해서 진행자에 의해 수정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세 번째 방식에는 번역이라는 작업이 포함되며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택했을 때 필요한 번역의 이론과 분석을 설명할 것이다. 이 세 번째 방식에서 번역 작가는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청취자의 반응과 문화적 맥락 효과 등을 고려해 번역해야 한다. 단순히 한글에서 영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라디오의 두드러진 특성⁶⁾들과 더불어 의사소통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성 이론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2. 영어 라디오 방송의 특성과 독자층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영어 라디오 방송 중에서 ST(원천 텍스트)인 한글원고가 TT(목표 텍스트)인 영어원고로 번역되는 한영번역을 다룬다. 영어 라디오 방송이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서 진행되는 방송(이하 외국 영어 라디오)과도 차이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 라디오 방송(이하 한국 라디오)과도 다르다. 외국 영어 라디오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통해 구한 번역 텍스트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 6) 라디오의 특성으로는 묘사성, 신속성, 일회성, 편이성, 병행성, 친밀성, 전문성, 공손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두원 2002: 23).

나타나는 차이점은 독자층이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 영어 라디오는 그 문화 속의 독자층, 즉 한국 라디오가 겨냥하는 독자층과 같이 한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만 통용되는 언어로 방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방송국은 문화 속의 독자층 중 영어로 방송을 들길 원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주로 영구적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어로 필요한 정보와 오락거리를 얻길 원하거나 한국을 관광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짧게 방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지역 시민들은 일반 한국 라디오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결과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한국인 청취자들은 조금의 노력을 더 들이더라도 모국어인 다른 언어의 방송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일반 한국 라디오와 달리 조금의 노력을 들이지만 그 대가로 영어의 향상이나 영어로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사실이나 은유 등을 이해하게 된다는 기대를 충족시킨다. 반면 외국인들은 영어 방송을 청취할 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고 편하게 방송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되는 언어인 영어도 그들의 문화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⁷⁾와 같거나 닮아야 한다. 문화나 개인의 언어 능력, 성격, 유머 감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청취자의 유형을 똑같은 관련성 이론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로 실제 청취자들의 반응과 생각 등을 알아보고 그 비례 수치에 맞추어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은 영어를 즐겁게 듣고 웃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능력과 동 시간대에 영어 라디오를 들을 만한 타겟층의 사람들이 비슷한 효과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7)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외국인 개개인의 문화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여기서는 영어)를 모두 고려해서 방송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영어 방송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점이고 그에 대한 최대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진행자들이 방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여전히 미국 문화적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2.3. 라디오 방송 번역과 관련성 이론

번역가는 청취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점에서 말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를 번역하기보다 ST의 문맥 속에서 최적의 관련성이 있는 의미를 번역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식 영어로 번역이 되거나 번역투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때 영어 라디오의 한국인 청취자는 노력을 덜 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외국인 청취자는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기대 이하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ST가 명시적 의미를 지니든 함축적 의미를 지니든 해석적 닮음(interpretive resemblance)⁸⁾이 손상되지 않고 번역될 수 있으려면 텍스트 속에서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번역을 할 때 영어 라디오 청취자는 이차적 위치⁹⁾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성 이론은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라디오 번역 텍스트는 기능적 작

8) 관련성 이론에서는 발화된 언어를 기술적 사용(descriptive use)과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한다. 언어의 기술적인 사용은 발화가 글자 그대로 실제 세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고, 해석적 사용은 화자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텍스트가 해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번역가는 실제 발화된 정보와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발화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정보와 재현된 정보 사이에는 해석적 닮음이 존재하는데, 이 해석적 닮음은 명시적(explicature)이거나 함축적(implicature)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발화 텍스트는 실제 정보에 더 가까운 명시성을 띄거나 청자로 인해 텍스트 속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함축성을 띠는 것이다.

9) 구트는 관련성 있는 번역을 읽는 독자들은 2차적 위치(secondary position)를 갖게 된다고 한다(Gutt 2000: 76). 관련성 있게 번역하기 위해 명제 형태가 아닌 해석적으로 닮은 형태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경우 ST와 TT는 문맥, 그리고 의미적으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TT가 아무리 관련성의 정도가 높은 번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역(misinterpretation)이 될 수 있으며 이 오역된 텍스트를 읽는 TT 독자들은 결국 1차가 아닌 2차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재창조, 혹은 개작된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경우를 2차적 위치를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트가 말하는 ‘오역’이란 mistranslation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해석적 표현을 번역하기 위해 문맥 중심으로 번역할 때 저자가 의도한 문맥을 벗어나 독자의 해석에 더 큰 중요성을 둘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2차적 위치가 항상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경우도 있다.

용의 효과가 중요한 의사소통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구트 또한 관련성 이론을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출발한다(Gutt 1998: 42). 화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어의적 내용(semantic¹⁰⁾ content)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기 바로 전 머릿속에 생기는 가정(assumption)을 문맥에 맞추어 수정(modify)하며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맥수정(context modification)이라 하는데 여기서 화자는 수정된 발화 텍스트를 통해 문맥적 효과(contextual effect¹¹⁾)를 만들어 낸다. 번역할 때 이러한 문맥효과를 중시한다면 텍스트 속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번역 방법이 관련성 이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적인 번역과 어의적 번역의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뉴마크(Newmark)가 구분한 어의적 번역과 의사소통적 번역이다.

표 1 뉴마크의 어의적 번역과 의사소통적 번역 재구성

	어의적 번역	의사소통적 번역
1	저자 중심	독자 중심
2	저자의 생각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추구	저자의 의도를 추구. 주로 스피치와 관련.
3	저자를 개인으로 간주	원작을 개작하고 작품 속의 생각과 문화적 내용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함
4	의미, 구조 중심. 문장의 길이, 절의 위치와 통일성, 단	효과 중심. 형식적 특징이나 원본이 더 자유롭게

- 10) 어의론적(semantic)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관련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인지적 틀 속에서 해석한다. 즉, 언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인간사고(mind) 속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구성요소나 단위으로써 인간의 사고를 밖으로 출력해 재현하는 형태를 말한다(Gutt 2000: 25).
- 11)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의해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을 수정하게 되는 데, 이것을 ‘문맥효과’라고 한다. 구트에 따르면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은 이러한 문맥효과를 통해서 새로운 문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Gutt 2000: 29). 여기서 새로운 문맥이란 수정된 새로운 형태의 문맥을 말하는 것인데 1) 이전의 가정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2) 이전까지 알고 있던 가정을 확인하며 강화시키거나, 3) 이전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정을 버리고 수정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 위치 등이 가능한 한 보존	희생
5	축자적 번역	자유로운 번역
6	텍스트는 주로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지만 내용 자체는 간략함.	쉽게 읽히고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관습적이고, 특정 사용역을 따르지만 길이가 짧.
7	시공간이 한정되지 않음 - '영원함'	일시적이고 문맥 중심 - '실존적'
8	광범위하고 보편적	독자를 위한 맞춤형 번역 혹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번역;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작업. 특정한 기능을 만족시킴
9	부정확성은 오역으로 간주	사실적 정보들이 전달되고 독자가 적절한 인상을 받는다는 전체 하에 문체, 수식어 등의 변화가 가능함
10	번역가는 원문을 다듬거나 고칠 수 없음	번역가가 ST의 문체, 모호함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음
11	원본의 실수는 주석에서만 명시될 수 있음	번역가가 원본에 나온 사실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음
12	목표: ST의 참(true) 번역, 즉 정확한 번역	목표: ST의 만족스런(happy)번역, 즉 성공적인 번역
13	번역단위: 주로 단어, 절	번역단위: 주로 문장, 문단
14	초점: 의미(meaning)	초점: 취지(message)
15	어의 번역	메시지 번역

(Newmark 1991: 11-3)

어의적 번역과 의사소통적 번역의 특징들을 구분해보면 의사소통적 번역은 저자의 사고과정보다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텍스트의 어의나 구조보다 효과를, 축자적이기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번역가가 번역의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더 주체적일 수 있으며 번역 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권한도 높아질 수 있다. 인쇄물 번역은 인쇄 형태로 남아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 등이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형태에서 볼 때 영원할 수 있다. 반면에 라디오 방송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발화된 순간에 사라지며 시공간이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의사소통적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독자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번역이 가능하며 번역가는 단어나 절보다 문장이나 문단을 모두 고려해서 번역한다.

<표1>에서 구분한 특징들을 보면 라디오 방송 텍스트의 번역이 의사소통적

번역의 범주 안에 든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것을 둘러싸는 텍스트가 더 중요시되고 효과 중심적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의적 번역은 발화문(speech), 효과, 목표언어, 메시지 중심적이지 않고, 텍스트 안의 추론과 그 문맥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번역이 아니므로 관련성 이론을 가지고 번역할 시 원하는 번역 효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련성 이론이 위의 특징들과 함께 발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 번역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번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로 대화나 발화문과 같은 의사소통적 텍스트 유형을 번역할 때 관련성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의적 번역 유형으로는 문학, 기술, 학술, 법률, 의학 등 번역가의 개입이 더 통제적이고 저자를 중심으로 번역하여 대체로 축어적으로 번역되는 텍스트들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적 유형으로는 연설, 회의, 소설, 해설, 희곡, 만화, 영화, 라디오 등의 텍스트가 있다. 의사소통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견, 생각, 감정 등을 알려주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의견과 감정, 생각 등을 상호 교환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이성범 2001). 라디오 방송 텍스트는 한 명의 진행자가 발화하는 텍스트를 청취자들이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보와 안락, 감정 공감 등을 얻을 때 ‘일방향 의사소통’이 될 것이고, 인터뷰와 같이 관련성이 진행자와 게스트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집중될 때 ‘양방향 의사소통’이 된다. 따라서 라디오 텍스트는 의사소통적 유형을 지닌 텍스트이며 경우에 따라 일방향이거나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구분¹²⁾될 수 있다.

12) 라디오 방송과 같은 경우 라디오 진행자가 복수라 할지라도 화자인 진행자 그룹과 청자 간에는 근본적으로 일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 화자가 한명일 때와 한명 이상일 때 전략적으로 필요한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을 따로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화자가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청자와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 텍스트를 크게는 일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 사례

3.1 관련성 이론이 적용된 번역 사례

다음은 실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한 번역 사례들을 보고 번역할 때 어떤 관련적인 요소가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보여준다. 관련성 이론 중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문맥과 최적의 관련성, 그리고 해석적 다툼이 어떠한 식으로 적용되어 번역되었는지 살펴본다. 또 일방향과 양방향의 번역 텍스트가 모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1.1. 문맥적 관련성을 지니는 번역

청자는 자신의 내면에 구축된 인지 세계를 바탕으로 화자의 발화 문맥 속에 주어진 단서를 근거로 관련성을 찾는다. 번역가는 이 사실을 전제에 두고 관련성 번역의 과정에서 ST를 대할 때는 청자의 위치, 그리고 TT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화자의 위치로 위치를 전환하여 번역해야 한다. 다음 예문은 일방향 의사소통 상황에서 진행자의 말이 청취자의 인지 세계에 있는 표현으로 번역되기 위해 번역의 어의적 표현이 변형된 사례를 보여준다.

예문 1

ST

시간 정말 빠르게 흐르죠? 벌써 3월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TT

Look how quick time flies~ It's already the end of March now.

(편편스테이지 2010 3월 27일 방송)

예문 1)의 ST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를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다’로 표현하였고 예문 1)의 TT에서도 목표문화의 관용적인 표현 방법으로 ‘시간이 날아간다’는 ‘time flies’를 사용해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1)의 ST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같은 맥락으로 예문 1)의 TT에도

사용되는 관용 표현으로 대체 번역되었기 때문에 어의적으로 ‘호르다’에서 ‘날다’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해석적 의미 변화가 없고 관련적 요소가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번역가는 예문 1)의 ST에서 보여주는 명제와 그 속에 담긴 말의 의도를 추론하여 저자가 원천문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목표 문화 독자에게 번역하여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문맥에 따라 번역 표현이 변형된 또 다른 예시이다. 예문 2) 또한 일방향 의사소통적 상황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예문 2

ST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TT

Last year, with the drop in the currency value in Korea, there were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causing a lot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위클리 리뷰 2010 4월 4일 방송)

문맥적인 번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문맥’이라는 용어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스퍼버와 윌슨에 따르면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발화의 문맥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청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의 가정(assumption) 중 작은 부분”을 뜻하며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발화된 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전제”(Sperber & Wilson 1986: 15)라고 한다.

여기서[관련성 이론] 말하는 ‘문맥’은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이나 바로 이전 발화의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기대, 과학의 가설이나 종교 신앙, 일화와 같은 기억, 일반 문화의 가정, 화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믿음 등의 환경이 해석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Sperber & Wilson 1986: 15)

예문 2)와 같은 경우는 수정된 새로운 형태의 문맥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

서 볼 때 앞장에서 언급한 문맥효과를 만들어낸다. 예문 2)의 ST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원화 가치’가 예문 2)의 TT에서 ‘the value of the won’으로 번역이 되지 않고 ‘한국 환율 가치’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청취자 중 외국인들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이다. 물론 한국 청취자도 맞을 수 있지만, 영어 라디오 방송은 한국인만 혹은 외국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환율 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한국인 청취자로서는 ‘원화 가치’라고 하든 ‘한국 환율 가치’라고 하든 그 의미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없다. 즉, 청취자가 익숙하거나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가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을 문맥적으로 사용해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문맥적 관련성을 양방향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활용하여 번역한 사례이다. 예문 3)의 경우는 이전까지 알고 있던 가정을 확인하며 강화시키는 문맥효과를 만든다.

예문 3

ST

A: 그래서 건강에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여러분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거든요.

B: 편식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병 따위가 가까이 올 순 없겠죠?

TT

A: So we need to be more careful with our health.

We have higher possibility of getting sick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when the seasons change.

B: Don't worry, we won't get sick as long as we eat and exercise well, and think positively.

(편편스테이지 2010년 3월 27일 방송)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라는 진행자 A의 말을 이어 진행자 B는 ‘편식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건강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예문 3)의 ST에서는 A의 말이 끝나고 바고 ‘편식 안 하고~’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예문 3)의 TT에서는 ‘don’t worry’로 대화를 이어나간다. 예문 3)의 ST와는 달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맥의 수정을 만들어내며 예문 3)의 TT의 가정을 더욱 강화시킨다. 즉, 청취자는 강화된 문맥으로 다음 나올 말이 긍정적이며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스퍼버와 윌슨은 “문맥효과의 개념은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맥효과가 있어야 관련성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요소들은 모두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문맥효과가 높으면 관련성도 높아진다”(Sperber & Wilson 1986: 119)라고 하며 문맥에 따른 관련성의 두 가지 범위 조건을 명시하였다. 하나는 문맥 속에 주어진 요소가 발생시키는 효과가 클수록 관련성이 높고, 또 하나는 문맥 속의 요소를 처리하는 데 드는 노력이 적을수록 관련성이 높다는 범위 내에 관련성 이론이 성립된다는 것이다(Sperber & Wilson 1986: 125). 이것은 라디오 텍스트 번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번역가는 문맥 속에서 청자의 가정을 수정하는 문맥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번역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청취자가 작은 노력으로도 그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3.1.2. 최적의 관련성을 가지는 번역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작아야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을 이해하는 데 필요 이상의 노력이 들면 자신의 인지 세계 속에 주어진 가정들을 탐색하다가 도중에 이해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 이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련성이 성립되는 텍스트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하는 때에도 최적의 관련성을 꾸준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는 라디오 매체에서 필요로 하는 대사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음 예문 4)와 예문 5)는 일방향 의사소통 상황에서 라디오의 대사의 특성을 고려

하여 최적의 번역을 한 예시들이다.

예문 4

ST

6월 27일, Hit the club입니다. 전 S이고요.

TT

Hello, this is S, today is June 27th, and you're listening to Hit the club right now.

(스윗데이츠 2010년 6월 27일 방송)

예문 4)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이다. 예문 4)의 ST의 경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생략되었지만, 예문 4)의 TT와 같이 ‘hello’로 시작하는 것이 ST와 TT 두 텍스트에 모두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 오프닝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멘트로 예문 4)의 ST에는 ‘OO(프로그램 명)입니다’가 예문 4)의 TT에는 ‘you’re listening to OO right now’로 번역되었다. 이 두 텍스트의 멘트는 각자 문화 속의 라디오 방송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멘트로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다. ‘OO입니다’가 번역 후 ‘당신은 지금 OO을 듣고 있습니다’로 바뀐 것은 표면적인 어의적 표현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원천 문화나 목표 문화의 독자들은 이 멘트를 들을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게 된다. 다음은 라디오의 대사의 특성을 따르기 위해 텍스트의 문장 구조가 수정 번역된 예시이다.

예문 5

ST

여성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라면, 군대, 축구,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고들 하죠?

TT

Three kind of stories that Korean women hate to hear! Stories of the military services, soccer, and playing soccer during the service.

(인사이드 아웃 부산 2010년 6월 22일 방송)

예문 5)의 멘트는 프로그램의 인사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멘트이다. 예문 5)의 ST에서는 ‘여성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라면...’으로 시작해도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시작 멘트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나 이 문장을 TT에도 그대로 번역할 때 ‘they say that stories about ~ are the three stories that women hate’와 같이 문장의 구조가 바뀌어 번역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보다 군대, 축구 등 여성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열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을 사용하면 라디오 방송과 같이 청취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한 오픈닝 멘트에 청취자의 관심과 궁금증을 바로 소멸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장을 나누어서 청취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멘트를 첫마디에 넣어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가 첫 문장에서 다음 문장을 유추해보며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최적의 관련성이 있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문 5)의 TT와 같이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로 번역하면 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나올 문장을 생각해보며 알고 싶어 하게 된다. 또 원천 문화 독자들은 ‘여성들’이라 지칭할 때 자연스럽게 문화권 내의 사람들, 즉, 한국 여성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목표 문화 독자는 ‘women’ 앞에 ‘Korean’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멘트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발화는 1)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청자가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찾아낼 때와 2) 화자가 전하고자 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청자가 들인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청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제공할 때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다(Gutt 1998: 43). 청자가 화자의 발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인지적으로 청자의 지식과 정보를 수정하게 된다. 청자의 인지 세계 속에 이러한 최적의 관련성으로 얻어진 문맥의 수정을 ‘긍정적 문맥 효과(positive contextual effects)’라고 부른다. 위의 예시들은 라디오의 특성을 살려 긍정적 문맥 효과를 만들어낸 번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관련성이 높은 발화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내고 청자는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화자가 의도한 최적의 관련성이 청자와 맞지 않을 때이다. 번역가는 최적의 관련성이 화자로부터 만들어지듯 ST에서 저자가 의도한 최적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목표 문화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되기 위해서는 발화하려는 말 바로 앞의 내용을 우선 파악하여 흐름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이 최적의 관련성이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최적의 관련성이 있게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주는 텍스트 번역의 예시이다. 텍스트 속에 두 명 이상의 화자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최적의 관련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예시는 양방향 의사소통적 상황이다.

예문 6

ST

A/ 영화 볼 때, 영화만 보죠?

B/ 영화관에서 영화 말고 보이는 게 있나요? 어두운데?

TT

A/ Do you concentrate only on the movie when you are watching them?

B/ Then? Do you see anything else? It's dark in there.

(스윙데이즈 2010년 1월 30일 방송)

최적의 관련성이란 사람의 인지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그 관련성을 하나의 뚜렷한 의미로 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번역가는 이럴 때 화자의 최적의 관련성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최적의 관련성은 번역가에 의해서 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문 6)의 ST에서는 ‘영화 볼 때, 영화만 보죠?’라는 질문에 ‘영화관에서 영화 말고 보이는 게 있나요?’라고 되묻는다. 이 대화에서는 ‘영화 말고 볼 것이 있냐’라는 내용으로 되물음을 하는 문맥이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예문 6)의 TT에서는 ‘영화관에서 영화 말고 보이는 게 있나요?’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Then?’이라는 말로 질문에 되물음을 하며 ‘그러면 당신은 딴 것도 보나요?’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번역 후 예문 6)의 ST와 예문 6)의 TT의 내용은 ‘보이는 게 있느냐’에서 ‘딴 것도 보느냐’라는 의미로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다. 이것은 중간에 번역자가

ST의 저자가 의도한 바를 도출해내어 최적의 관련성이 있는 TT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1.3. 해석적 답음을 따르는 번역

실제 정보와 재현된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해석적 답음을 파악하여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관련성을 가지는 번역 전략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번역가는 ST를 번역할 때 ST가 명시적인지 함축적인지, 명시적이면 무엇을 명시하는지, 함축적이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는 해석적 답음 속에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가 더욱 많고 뚜렷할수록 쉽게 이해된다.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부분이 많을수록 관련성 있게 텍스트를 번역하기 쉬워진다.

다음은 일방향 의사소통적 상황의 ST에서 명시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TT로 번역되면서 함축적으로 변형되어 번역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번역이 이루어진 예시이다.

예문 7

ST

날이 추워졌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가을이 지나면서 옆구리를 채워 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던 우리의 데미안은 이제 현실에 순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TT

It's cold now. I think Demian, who was hopelessly looking for someone to fill up his loneliness during the summer and autumn, is beginning to face the fact.

(스윙데이즈 2009년 11월 7일 방송)

예문 7)의 ST의 ‘외로움’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 예문 7)의 ST의 ‘옆구리’와 같은 함축적인 관용 표현이 예문 7)의 TT에서 번역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의미인 ‘loneliness’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은 여전히 해석적으로 닮은 뜻이 있어서 원천 문화의 독자가 듣고 이해하는 효과와 목표 문화 독자가 이해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번역된 표현도 여전히 높은 관련성 가진다. 다음은 일방향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위의 예시와 반대로 함축적인 표현이 명시적인 표현으로 변형되어 번역된 예시이다.

예문 8

ST

사실 오늘요,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우절이니까요^^
자~ 4월 1일 목요일 <morning wave in Busan> 시작하겠습니다,

TT

I'm not going to share any power with you today. April fool!!

Let's begin <morning wave in Busan> for Thursday, April 1st.

(모닝웨이브 인 부산 2010년 4월 1일 방송)

ST에서는 화자가 ‘만우절이니까’ 혹은 ‘만우절이잖아’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한 말이 만우절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반면 목표 문화에서는 ‘April fool!’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만우절 거짓말임을 드러낸다. 예문 7)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 예문 7)의 ST에서 대체할 관용 표현이 없는 예문 7)의 TT로 번역한 것과 반대로 예문 8)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예문 8)의 ST가 예문 8)의 TT에서는 관용적 표현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8)의 ST와 같이 ‘because today is April Fool’s day’라고 길게 나열하지 않고 위의 TT와 같이 번역하여도 의미적인 내용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충실한 번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문 8)도 여전히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해석적 닮음을 지니는 번역은 명시적이든 함축적이든 변형되어도 높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해석적 닮음에 따르는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준다. 인사와 같은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나누는 대화에 속하기 때문에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본다.

예문 9

ST

A/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 감사합니다.

TT

A/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your time with us.

B/ Not at all, thank you.

(인사이드 아웃 부산 2010년 4월 13일 방송)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게스트(B)는 예문 9)의 TT와 예문 9)의 TT의 문맥에 맞게 대답을 한다. 진행자(A)는 똑같이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예문 9)의 ST에서는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로 답하였고 예문 9)의 TT에서는 ‘천만에요, 감사합니다’라고 번역된다. ‘천만에요’라는 의미가 ST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함축적으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TT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천만에요’와 같은 문화 맥락적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번역되었으면서 문맥에 손상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며 해석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 가능한 사실을 보여준다.

4. 결론·한계와 가능성

관련성 이론은 인지 환경 속에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추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적 번역의 성격을 가지는 라디오 번역 텍스트 또한 청취자들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그들의 인지 세계의 정보를 뒷받침하여 추론되고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제로 방송되기 위해 번역된 프로그램 텍스트들을 관련성 이론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부산영어방송에서 번역되어 사용되는 방송 텍스

트들을 종류별로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분석한 텍스트와 같은 예시들이 하나의 원고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본 논문은 라디오 방송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라디오 번역 텍스트가 의사소통적 번역에 속한다는 사실과 의사소통적 번역을 관련성 이론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는 점만 밝히고 그 이상으로 의사소통적 번역 텍스트 유형 중 라디오 텍스트만이 가지는 차별성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차후 더 많은 자료와 함께 다른 텍스트 유형과 직접 비교 분석하여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미처 논하지 못한 관련성에 입각한 번역 전략 사용의 빈도수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유의미한 점은 라디오 번역 텍스트가 어떤 번역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여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대에 중요시 여겨져야 할 미디어 번역에 더 큰 관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성 이론 중 의사소통적 번역 전략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문맥을 도출하여 번역하는 방법과 최적의 관련성에 맞추어 청취자 중심적인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해석적 다텔의 이론을 통해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으로 번역하는 방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어 번역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일방향, 양방향 두 가지의 특징들이 모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관련성 이론에 각각 일방향과 양방향 특징 텍스트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후 라디오 번역 텍스트는 문화적인 주위 환경과 문화 내에서 사용하는 관용어들이 적절하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과 라디오 방송의 특성에 맞게 구조와 표현을 변형시키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라디오 텍스트와 같은 의사소통적 번역에서 관련성 이론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에 라디오 텍스트를 번역할 때 번역가로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라디오 텍스트 번역과 같은 미디어 번역에 대한 이론과 체계도 조금씩 다져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영 (2005) 「은유표현의 풀어서 번역하기(paraphrase) 방식이 SL과 TL의 맥락효과에 미치는 영향-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연구』 47(3): 87-101.
- 박미정 (2008) 「한일시사만화번역의 시각이미지 은유와 번역계약 -시사만화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번역학연구』 9(1): 117-44.
- 박정규 옮김 (2001)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McLuhan, Marshall. 1994.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MIT.)
- 유선영·황오금희·남궁강 (2003)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두원 (2002) 『라디오 프로그래밍 : 다채널 시대 라디오의 기획, 편성, 제작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창수 (2000) 「문학작품에서의 비유적 표현의 번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1): 57-83.
- 정인희 (1997)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한 영상번역 연구번역 현상』,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림 (2008)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일한 더빙번역에 나타난 번역자의 개입」, 『통번역학연구』11(2): 119-33.
- 최현철·한진만 (2004)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연구 : 편성 흐름을 중심으로 = A History Study on Radio Broadcasting Programs in Korea』, 파주: 한울아카데미.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Crisell, Andrew (1994) *Understanding Radio*, London: Routledge.
- Gutt, August (1992) *Relevance Theory :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_____ (1998). 'Pragmatic Aspects of Translation: Som Relevance-Theory

Observations' in Hickey, L.(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41-53.

_____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aint Jerome.

Newmark, Peter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s), Oxford: Blackwell.

_____ (1993) *Relevance*. CPU, Cambridge.

(재)부산영어방송재단 (Busan e-FM 90.5mhz) 분석 TT 텍스트

모닝 웨이브 인 부산(Morning Wave in Busan) 2010년 4월 1일 방송 텍스트

스윗데이츠(Sweet Dates) 2009년 11월 7일, 2010년 1월 30일, 2010년 6월 27일
방송 텍스트

위클리 리뷰(Weekly Review) 2010년 4월 4일 방송 텍스트

인사이드 아웃 부산(Inside Out Busan) 2010년 4월 13일, 6월 27일 방송 텍스트

펀펀 스테이지(Fun Fun Stage) 2010년 3월 27일 방송 텍스트

<부록 1>

주중 영어 라디오 방송 서비스 현황 (2010년 10월 31일)

	아리랑 라디오	TBS 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00:00	Midnight Cafe ⑤	Music Planet ③	Midnight Cafe(A) ⑤	
01:00				
02:00				Jazz Hour ⑤
03:00	Music 180 ⑤	Rough Around the Edges ⑤	Rough Around The Edges(T) ⑤	Rough Around the Edges(T) ⑤
04:00				
05:00				
06:00	Cuppa Korean ④	Out of bed with Travis ③	Morning Breeze(A)	Out of bed with Travis(T) ③
07:00	Breakfast Club ②	This Morning ②	Morning Wave in Busan ②③	This Morning(T) ②
08:00				
09:00	Travel Bug ⑥	Kick Start ⑤	Travel Bug(A) ⑥	Kick Start(T) ⑤
10:00			e-FM News ②	
			All Aboard English ④	
11:00	World Music Station ⑤	Soul of Asia ③	World Music Station(A) ⑤	Hello Korea ③
12:00	Mid-Day Break ⑤	K-Popular ⑤	e-FM News ①	K-Popular(T) ⑤
			Mid-day Break(A) ⑤	

13:00				
14:00	K-Pop Zone ⑤	The Steve Hatherly Show ③⑤	K-pop Zone(A) ⑤	The Steve Hatherly Show(T) ③⑤
15:00			e-FM News ①	
			See The World ③	
16:00	Golden Goodies ⑤	Drive Time ⑥	Drive Time(T) ⑥	Drive Time(T) ⑥
17:00	Radio 5:30pm		Weekly Update ①	
			Drive Time(T) ⑥	
18:00	Riding Home ②	The Evening Show ②	e-FM News ①	City of Light ③
19:00			Medical Tip ③	
			Inside out Busan ③	
20:00			e-FM News ①	
21:00	Evening Groove ⑥	M-Town ⑤	Evening Groove(A) ⑥	M-Town(T) ⑤
22:00				
23:00	All That Jeju ③	On the Pulse ⑤	Midnight Rider ⑥	On the Pulse(T) ⑤

* ①뉴스, ②시사정보, ③생활정보, ④교양/교육, ⑤순수음악, ⑥쇼/토크, ⑦퀴즈/게임, ⑧스포츠, ⑨드라마

[Abstract]

Radio Text Translation and Relevance Theory

Park, Hee 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relevance theory can be used as a translation strategy in translating radio broadcast texts. Despite the importance in media translation in the contemporary age, studies on the new fields in media translations, such as audio-translation has not been studied actively among the translation scholars. The paper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elevance theory on to radio text translation, and the types of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ould be used in translating radio texts. The idea of the relevance theory comes from Sperber and Wilson, who introduced the relation of the relevance between communication in a cognitive view. The paper studies the translation with the relevance theory, mainly with the theories which Gutt has adopted in analysing translation.

To find out the distinctive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ould be used on translating the radio texts, the translations types have been distinguished in two different types, semantic and communicative translations, and the radio translation has been proved to belong to the communicative translation type. To analyse and find out the strategies that has been used in translating, the relevance theory was applied and analysed with the radio translation texts. The case studies were done by the translated texts of various programs that has been used in Busan efm between year 2009 to 2010. Some of the relevance based strategies were found after the analysis, which could become useful in the future when translating radio texts.

▶ Key Words: radio translation, communicative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optimal relevance, media translation

박희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박사과정

heejinp@hanmail.net

관심분야: 미디어 번역, 문화 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